

1. 인종에 갇힌 몸들

- 이탈리아 의류회사 베네통(Benetton)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연상시키는 사진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
- United Colors of Benetton 이라는 문구 아래 세계평화와 인종화합의 선언이 담긴 컬러풀한 의류를 만들, 그러나 과연 윤리적인가?
- 베네통의 광고는 백인, 흑인, 황인이라는 3분류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
- 이러한 익숙한 형식으로 반복되는 스테레오타입이 인종주의에 계속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음
-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에 각인된 인종의 분류법은 언제 생겨났을까? 인종 개념의 기원과 분류는 무엇일까?

인종 개념의 기원과 형성

- 인종이란 민족과 계급처럼 태초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 산물로서 발생한 것임
- 근대 이전의 유럽에서 인종은 '혈통'이나 '품종'을 의미했음
- 첫 번째 계기 - 레콩키스타(Reconquista) & 콘베르소(converso)
 - 레콩키스타 - 그라나다 함락으로 기독교가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재정복한 전쟁
 - 이 과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은 기독교로 개종, 그러나 거짓 개종자가 발생
 - 콘베르소, 즉 개종한 유대인이 '핏줄'이 달라서 문화나 종교의 차이가 아닌 본질적인 차이로 개종될 수 없다는 논리 발생
 - 이로 인해 '좋은 혈통'과 '축복받은 집안' vs '나쁜 혈통'과 '저주받은 집안' 등 가치판단이 개입
- 두 번째 계기 - 분류 기술과의 결합
 - 아메리카 대륙 정복 이후 프랑스 의사이자 여행가인 프랑수아 베르니에에 의해 인종이 분류(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라플란드인, 인디언)
 - 이러한 인종 분류 방식이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 백작, 카를 폰 린네,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 같은 자연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며 18세기 말 유사한 외양과 특성을 공유하는 생물학적 하위 분류로써 인종의 개념이 자리잡음
 - 유럽인과 비유럽인이 만나는 '접촉지대'가 발생하여 무력에 의한 정복 뿐 아니라 분류학을 통한 세계의 유럽학문 체계 안으로의 통합(반정복의 정복, anti-conquest conquest)해 '궁극의 정복'을 이룸(린네의 분류학이 그 대표적 예)
 - 한편, 유럽인들의 인종론은 이러한 분류학의 계보 뿐 아니라 미학의 계보 또한 따름(요한 요하임 빙켈만의 그리스 조각 찬양)
 - 과학으로부터 미학으로, 미학으로부터 과학으로의 전환과 순환이 근대 인종주의의 특징
 - 인간 본성과 내면의 아름다움이 신체적 기호로 드러난다는 고전적 미학사상에 따라 백인 유럽인을 미의 기준으로 삼아 인종적 서열화

린네의 분류학

1735년

- '탐사'와 '분류' - 인종 개념을 구성하는 재료
- 첫 번째 사건 - 프랑스 지리학자 샤를 마리 드 콩다민
 - '남아메리카 대륙여행에 대한 짧은 서사' - 아마존 정글을 매혹적이고 위험한 세계로 묘사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사실상 문학적 글쓰기)

- 라 콩다민 이전의 탐사(콜롬버스, 마젤란 등)은 주항의 형태로써 바다로 나아가 무역로를 개척하고 해안선을 따라 세계지도를 완성
- 그러나 라 콩다민은 직접 내륙 탐사에 성공, 그로 인해 유럽인과 비유럽인의 접촉이 증가
- 이로 인해 유럽의 인식 체계가 지구상 여러 지역을 포괄하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본격적으로 추진
- 두 번째 사건 - 린네의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 출간
 - 처음으로 인간을 네 '변종'(varieties)으로 나누는 분류체계 확립
 - 과학이 전문분야로 세분화되기 이전 자연학을 하던 의학과 교수로써 제자들(충실한 '사도')이 전 세계에서 수집한 표본으로 식물 분류체계 완성
 -

인종의 표지, 피부색

젓가슴의 정치학

분류의 욕망과 인종주의

빙켈만의 미학

빙켈만과 고대 그리스

흰 그리스 조각상

안면각과 두개측정에서 인종 사진까지

캄퍼르와 블루멘바흐

골상학과 두개측정학

인종 사진과 열등 인종의 가시화

2. 검은 몸의 노예, 저항의 언어

누가 '흑인'인가?

'한 방울 법칙'과 시선의 권력

패싱, 인종의 경계 넘기

노예무역, 노예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노예무역과 아프리카인의 노예화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 올라우다 에퀴아노

노예제의 유산과 기억의 정치

대서양 노예무역폐지 200주년 기념

노예제 기억과 이미지 정치